

다산포럼

정조대왕의 검소함



김준혁
한신대 평화교양학부 교수

정조는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16일, 자신이 등극하기 전에 궁중에 있던 내시와 액정서 소속 인원 108명과 궁녀들을 줄이라는 뜻밖의 하교를 하였다. 군주가 자신을 도와주는 내시와 액정서 소속의 인원, 여기에 더해 궁녀를 줄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다. 군주가 이런 일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는 내시와 궁녀가 많을수록 편할 것인데, 이들을 대거 궁에서 내보낸 것이다. 이때 정조가 내보낸 궁녀가 무려 300여 명이었으니 이는 왕실 궁녀의 한 가가이 해당되는 인원이었다. 정조가 이렇게 내시와 궁녀를 많이 내보낸 이유는 다름 아닌 국가 재정 때문이었다. 속중 대부터 시작된 기후 이상인 영조 때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영조는 재위 52년 중 40년을 금주령을 내릴 수밖에

에 없었다. 백성들이 먹을 쌀도 부족하던 그 귀한 쌀로 술을 빚어 먹으면 안 된다 는 것이 영조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영조는 잔혹하리만치 조정의 명을 어기고 술을 빚어 먹은 이들을 사형죄로 다스리기도 하였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정조는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국가 전체로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정조가 즉위하고 국가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호조 예산의 56%가 국방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쓸모없는 군대의 장수들 급여로 많은 예산이 빠져 나가는 것을 정조는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양 일대의 군대 통폐합을 단행하는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정조는 이것만 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안정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대로 해야 하지만 군주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 재정 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신이 술선수범하여 국가 재정을 줄이는 검소함을 보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시한 것이 바로 내시와 궁녀를 대궐 밖으로 내보내 이들에게 지

출되는 경비를 줄인 것이다. 내시와 궁녀들은 거의 정3품에 해당되는 관원들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대폭 감축하는 것은 국왕에게는 불편한 일이지만 재정적 측면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정조는 얼마 뒤에 하루에 두 끼, 그리고 한 끼에 반찬을 다섯 가지만 먹었다고 선언하였다. 국왕의 아침과 저녁 수라는 고기와 반찬 등 열한 가지 이상이 들어가 는 최고의 음식이었다. 소주방(燒酎房)에서 국왕의 건강을 생각해서 최고의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 상례인데, 정조는 이를 거절하고 최소한의 식사만을 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정조가 국왕으로 있던 24년간 내내 지켜졌다.

정조는 여기에 더해 비단옷을 입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 비단옷이 곤룡포와 강사포 말고는 없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조는 무명옷을 입고 살았다. 그뿐만 아니라 옷이 헤지거나 버선에 구멍이 나면 이를 버리지 않고 실로 꿰매 입었다. 한 나라의 군주가 옷과 버선을 꿰매 입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조의 검소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이 거처하는 작은 방을 화려하게 하지 않고, 냇가에서 나는 부들로 만든 돗자리를 깔고 살았다. 창경궁 안에 있는

영춘헌이 하도 오래되어 비가 오면 빗물이 방안으로 스며들어 곰팡이까지 슬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이를 개의치 않고, 신하들에게 “나는 천성이 검소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며 새로 도배를 하게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국왕이 검소하게 생활하니 자연스럽게 궁중의 모든 이들이 검소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정조는 이렇게 모은 돈은 궁중 재산으로 두지 않고 이를 모두 호조로 보내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였다. 왕실 재산을 고리로 조정에 대어하여 이익을 얻은 한말의 군주 고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행동이다. 정조의 검소함을 가까이서 늘 눈으로 지켜본 정약용은 훗날 자신의 자식들에게 “거친 음식과 해진 옷을 부끄러워하는 이들과 친구를 맺지 말라”고 하였다.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사실 그러한 모습이 확연히 눈에 보이고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사치가 만연하면 국가와 사회는 올바르게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때 일수록 사회 지도층이 정조처럼 더욱 검소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소함을 통해 얻은 이익을 어려운 이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NGO칼럼

광주시가 자초한 ‘민간 공원’ 의혹과 불신, 그 해법은?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광주 민간 공원 2단계 특례 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핵심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속출함에 따라 광주시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출해서는 안 될 제안서 평가 결과표가 무슨 이유로 유출됐는지? 탈락 업체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공모 지침과 달리 광주시는 왜 이의를 받아들여 쉐프 감사까지 하였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아들인지? 이용설 시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이 시장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왜 유출했는지? 특정 업체로 변경하기 위해서인지? 등등 지역 사회가 제기했던 의혹들은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결정적 의혹들을

밝혀내지 못한 채 미묘한(?) 수사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여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이 추가된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이 시장의 친동생은 호반건설에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장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 까지 13억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했다고 한다. 호반건설은 이 시장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철강 유통업체가 철근을 납품하면서, 다른 업체보다 영업 이익을 내 배 정도 더 챙길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고 한다. 호반건설은 왜 그랬을까?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 수사의 정점인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에 대한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적극 행정이자 소신 행정의 일환이라며,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추진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특히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우선협상 대상자와 사업 추진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술한 의혹과 불신을 자초한 광주시는 수천억 원의 이권이 달린 대형 사업에 임한 공무원 네 명이 기

소되고, 행정 신뢰도 추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재정난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가 일몰제에 압박한 시점을 고려하여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약속한 ‘청렴·공정·투명’이라는 3대 원칙 속에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 더구나 중앙공원은 사업 대상지의 38%에 해당 하는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 ‘광주 환경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이유이다. 그만큼 민간 공원 사업은 광주시민의 삶, 광주도시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광주도심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79%)이 가장 높은 고층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무지막직하게 삭막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광주 시민이 지속 가능하게 건강한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에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모든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의혹과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광주 시와 사업자 중심의 일변도로 가는 것은 광주시 여러 사업(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

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표류 등)에서 드러난 시행착오에서 볼 수 있듯 탈락업체 소송 가능성과 같은 변수 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목은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 시장 의지의 총만함이 지나칠 일방적 주도 방식으로 직진하려고만 하다 보니, 중요 현안들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 시장은 동생 기소로 인해 일개 몇 정치적 타격을 보았을지라도 민간 공원 사업을 더욱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직자 누구도 금품 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다’라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이 약속했던 3대 원칙에 준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보다 더 면밀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과 각오를 말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사·의회·사업자·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통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싶다. 또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절차와 과정을 밝히 추락한 행정 신뢰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기고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박안수
전 농업진흥총지부장·경제학박사

지난해 교수신문은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올해의 고사성어로 선정했다.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 공명조의 한쪽 머리가 죽으면 다른 머리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는 서로 이기려 하고 자기만 살고자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같이 죽게 되는, 분열된 한국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어복준주(魚目混珠)도 많이 들 선택하였다. ‘물고기 눈이 진주와 섞이다’라는 뜻으로, 가짜와 진짜가 마구 뒤섞인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가짜 뉴스 등 진짜와 가짜를 분간할 수 없는 세대를 대변하는 사자성어다. 올해는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이 시작된 지 20년째가 되는 흰 쥐띠의

해 경자년이다. 쥐는 인간에게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강하지만, 본래 쥐는 다산과 근면, 그리고 예지력과 영민함 등으로 상징되는 영물로 해석되며 12간지 중 첫 번째에 해당되는 동물이다. 많은 전문가는 경자년 을 올해를 온갖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해로 보고 있다. 먼저, 여름 일본에서 지구촌 축제인 도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돼 세계인들과 우리 국민은 열광과 환희를 함께할 것이다. 도쿄 올림픽은 일본에서 열리지만, 지정학적으로 참가 선수와 관람객이 우리나라를 경유할 수 있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일본 특수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전 연습과 숙박에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해외 선수들의 평가다.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나, 당선자에 따라서 북·미 관계나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부담은 물론 한·미 무역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극한 대립했던 미·중 무역 분쟁이 다소 완화되어 최종 합의안이 마련돼

1월 15일 서명을 남기고 있다고 하니 우리 경제에도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새해에는 언론의 머리 뉴스(news headline)에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사건·사고의 딱딱한 뉴스보다는 동화처럼 아름답고 행복스러운 소식들이 넘쳐 나갈 기대해 본다.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실시된다. 누구나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으나 아무 사람이나 선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다수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학습 효과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괴물 집단’ ‘폭동’ ‘북한군 개입’ 등 막말과 망언을 서슴지 않은 정말 폭력 없는 사람, 지역주의를 조정했던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세비 값도 못하는 무능하고 나태한 국회의원들은 우리를 실망케했다. 육석을 가려 이제는 진정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에서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지난해 12월 착공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의 공사가 예정대로 완공되

어 지역 경제의 베타폭이 되고 활성화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세계 수준의 연구 개발 중심 대학인 한전공대도 조기에 착공 되길 바란다.

광주·전남 협력 사업의 하나인 광주 공군 비행장의 이전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상생 협력하여 문제들을 풀고 있음을 타산 지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청년들의 역외 진출과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지난해 농산물 수확기에 불어닥친 여러 차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없고 농산물 가격도 안정되며 새봄이 도입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농가 소득에 다소나마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경자년에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보다는 서로 차이를 인정하며 갈등과 반목을 넘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 공정과 평등의 사다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사회,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해 본다.

社說

한빛원전 폐로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해야

한빛원전 1·2호기는 지난 1986년과 1987년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설계 수명은 40년이었다. 따라서 오는 2025년과 2026년이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이들 원전의 폐로(廢爐) 시기가 불과 5~6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치단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광군은 여제 군청에서 한국산업개발 연구원과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금액은 2억 원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도 지난 2018년 5000만 원을 들여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이처럼 거액의 자체 예산을 들여 폐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 것은 한빛원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용역 결과 영광 지역 내 총생산 중 한빛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65.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한빛원전이 2013~2017년 영광군에 납부한 지방세(2659억 원)도 군 전체 세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원전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후한 한빛원전 1·2호기는 그동안 열출력 급상승 등 술한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따라서 원전 폐쇄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핵 위험과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원전의 공사야 용역, 구매 계약 때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등의 여러 혜택 또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만큼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용역을 통해 한빛원전 폐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원전 해체와 폐기를 관리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들 분야를 대체 산업으로 키우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소년법 개정 청소년범죄 처벌 수위 강화를

청소년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흉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소년법 범죄 검거 수는 2018년 2438건(구속 24명), 2019년 2529건(23명)으로 연평균 2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년법의 살인·강도·간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 검거 건수도 2018년 1623건, 2019년 1536건 등으로 다소 감소 추세지만 범행 수법이나 죄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소년범죄 중 살인 사건은 없었지만, 지난해엔 무려 3명이 살인 혐의로 검거됐다. 소년법 강도 검거 건수도 2018년 9명에서, 지난해엔 27명으로 세 배나 늘었다.

소년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검거 건수 역시 2018년 246명,

2019년 274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가 예전과 달리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고 있지만, 법적 처벌은 미미해 청소년 범죄를 사실상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에서 19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지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특히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은 여기서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환경이 변한 만큼 죄질이 나쁜 소년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침침한 등잔 불빛 아래 다섯 사람이 저녁을 먹고 있다. 메뉴는 빵이 아니라 감자다. 남루한 옷차림이나 조촐한 저녁거리로 미뤄 볼 때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살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가 1885년 4월에 그린 작품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다. 어두운 화면 속 이들 다섯 인물들의 표정과 동작은 생생하다. 등을 돌린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탁자에 둘러앉은 네 명의 어른들이 감자를 나누고 차를 따른다.

촉대는 장인의 손길을 거치면서 생활용품에서 예술 작품으로 변모한다. 저마다의 촉대에는 만든 이와 사용한 이의 스토리텔링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 성진기(78)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1980년대 초 독일 베를린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있을 때 ‘빛’과 ‘온기’를 선물하는 촉대에 매료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간 500여 점의 촉대를 수집했다. 나무, 자기, 돌, 유리, 금속 등 촉대 재료가 각기 다르고 똑같은 디자인도 없다. 다양한 모

촉대의 미학

양은 분위기인데도 작품에서 따뜻한 느낌을 받는 까닭은 작품 중앙 상단에 자리한 등불 때문일 것이다. 촉불은 전기 발명 이전 수천 년 동안 사용해 온 생활용품이다. 자연스럽게 초를 쬐어 놓는 촉대 역시 발달해 왔다. 촉대에는 종교적인 의미도 가미됐다. 일곱 대에 걸친 촉대인 ‘메노라’(Menorah)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충동적으로 성당 은접시를 훔쳐 달아나다 잡힌 장발장에게, 신부는 은촉대를 내주며 ‘자네 영혼은 내가 사서 하느님께 바쳤다’고 말한다.

양 의 촉대를 보고 있노라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싶다. 성 교수의 애장품 촉대 2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남구 사동(중앙로 110번길 29-4) ‘황토길 사동’에서 열리고 있다. 새해 초,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는 작은 촉대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미소보다 눈물을 더 많이 섞어 만든/ 빛보다 그림자를 더 많이 섞어 만든/ 촉불의 눈길로 은은하게 나를 바라보다가/ 또 하나의 촉불을 건네주었다.”(정호승 ‘촉불의 그늘’) /송기록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주최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